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9일 월요일 음 12월 19일 (11월)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 낮 최고기온은 8~11℃로 예상된다. 일교차가 크며 기온이 낮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돋이 07:33	해질 18:01	달돋이 21:14	달지기 09:33
물때 만조 00:22	간조 06:52	간조 13:00	만조 19:33

식중독지수 경고

감기가늘지수 경고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림 4/12℃

모레 ☔ 비 11/16℃

월드뉴스

일본, 외국인 취업체류 허용 검토

직종에 운전·역무원 포함

일본 정부가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대상 직종에 버스 운전사나 역무원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특정 기능 1호' 대상 업종에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특정 기능 1호 대상 업종은 건설과 음식료 제조 등 12개 분야에 한정돼있다.

정부 당국자는 추가될 자동차 운송업에서는 버스나 택시, 트럭 운전사를, 철도에서는 역무원과 차장



일본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연합뉴스

등을 각각 허용 대상 직종으로 검토 중이며, 기존 음식료 제조업 분야에서도 슈퍼마켓 내 반찬 조리 직종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본은 일손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넓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운전자의 근무 시간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운전사 부족에 따른 물류 차질이 사회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이운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김성훈
편집부장

지금으로부터 약 스무해전의 일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 제주의 행정 체제를 바꾸려는 일로 제주섬이 시끌시끌했다. 2005년 주민투표를 거쳐 이듬해 4개 시·군체제가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이어져오고 있다. 4개 시·군체제 당시 남제주군에 이어 구조개편 후 행정시였던 제주시를 연이어 졸업했던 터라 당시 도민사회 분위기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행정의 효율성, 주민자치 후퇴 등등 체제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두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서로가 이른바 ‘쉴드’를 쳤다. 그럼에도 일

행정체제 바뀌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반 도민들은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수십 년 이어져온 행정의 뼈대가 바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며 그 변화는 긍정적이나 하는 근본 물음이다. 바뀐 행정체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몸에 밴 체 지금껏 흘러왔지만 무엇이 좋아졌는지는 단언치 못하겠다.

18년이 흐른 지금 제주사회가 또 시끄럽다. 이번엔 이전처럼 돌아가자고 한다. 여러 의견이 모아진 끝에 나온 것은 3개 행정구역 안이다. 현재 전개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또 다시 주민투표를 거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제주도가 최상의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번 경청회를 가졌다. 그때마다 나온 도민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있다. “달라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다. 어떤 제도이든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한 장단점은 이해관계로 연결되고

때론 갈등으로 표출되곤 한다. 그런 갈등을 막거나 최소화하는 게 행정의 책임이고 능력이다.

고작 70만명에 불과한 사람이 살지만 이곳 제주는 언제부터나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같은 굵직한 사안을 거론한 필요도 없다. 개발과 보전이 부딪치며 주민 간 갈등이 표출돼 ‘귤당’ 이던 마을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곳이 적지 않으며 현재진행형인 곳이 수도룩하다.

2005년 당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바꾸자는 ‘혁신안’과 현행대로 두자는 ‘점진안’이 맞붙으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촉발됐음이다. 다시 바뀌려는 행정체제 개편, 많은 도민들이 물음을 던지는 데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다. 지방분권이 시대 흐름임을 감안하면 돌아가야 할 명분이 없진 않지만 지금은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로

빛어지는 민생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월급쟁이들의 소득은 만년 전과 같고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자기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층의 탈제주가 이어지는 등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폭발지경인 이 시기에 꼭 물아붙여야 하는점이다. 새 행정체제에 걸맞은 행정기관 위치는 물론이며 구역 조정 등등 앞으로 우려되는 갈등 촉매제도 한둘이 아니다. 부활한 기초자치의회 선거 과정에 촉발될 지역주민 간 갈등은 벌써부터 격정이다.

행정은 무엇을 하든, 그 최선은 당연히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앞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이 좋아집니다”고 자신 있게 밝히고 말할 수 있을 때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터다. 행정의 책임과 능력을 기대해 본다.

열린마당

“우리도 ‘플로킹’ 허젠 마썸”



김한중
혼디모영봉사단장

노인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혼디모영봉사단’은 매월 2회 도내 해안가를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한다. 단원들은 감사하게도 지난 5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었다.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닌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원들이 참으로 고맙다. 옮겨 옮은 날씨가 추워 단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봉사활동을 잠시 쉬고 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날이 풀리고 나면 제주도 안에 또 다른 섬 해안가 정화 활동을 계획 중이다.

제주에는 섬 속의 섬인 우도, 주

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가 있다. 이곳에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출입이 많은 곳이라 쓰레기도 역시 많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때때로 쓰레기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섬 역시 제주도이다. 어찌 되었든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섬 안의 섬 주변 환경 정화도 해야 한다.

따뜻한 봄이 오면 배를 타고 섬 안으로 들어가 환경정화 봉사도 하면서 섬 해안가를 걸으며 우리의 건강도 챙기려고 한다. 먼저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플로킹’이다. ‘플로킹’은 ‘걷는다(Walking)’와 스웨덴어인 ‘줍다(Ploka Upp)’가 합쳐진 단어라고 한다. 해안가를 걸으며 만끽하는 청정 제주의 아름다움과 함께 웃으며 참여하는 섬 속의 섬에서의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이 벌써 기대된다.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탄생한 민간해양구조대



송상현
제주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장 경위

2023년 12월 8일 민간해양구조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입법을 추진했던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통과로 민간구조 세력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통영에서 처음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해양 사고 발생 현장 어디에서든 해양경찰을 지원하는 민간구조 조직으로 성장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2022년 이달근, 윤재갑 의원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이후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입법 필요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구조대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라는 명칭이 ‘해양재난구조대’로 변경돼 최종 법안명 ‘해양재난구조대법’으로 제정됐다.

2023년 제주 민간해양구조대는 선박 21척과 43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해 큰 활약을 했다.

제주해경은 올 한 해 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구조세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과 보다 발전적인 민·관 협업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으로 구조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서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들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래프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자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 석사
청년 어재활사

